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 가족주의, 효

류정현*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문화적 맥락 내에서 나타나는 부모-자녀 관계를 파악하고 한국의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교문화의 특징인 한국적 가족주의(家族主義)와 효(孝)가 부모-자녀관계와 어떠한 관계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관해 문헌 고찰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나온 결론은 우리나라의 부모-자녀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하나로 지각하는 특성인 강한 동일체감으로 부모와 자녀가 각각의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전체의 일부분으로 보고 자녀를 부모의 확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특징이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서로 상보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치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유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집단을 가족을 근간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적 가족주의와 효는 유교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가족주의가치관이 우리나라에 널리 인식되면서 우리나라의 가문의 발전과 계승으로 이어져 나가는 역할을 했으며, 효는 부모-자녀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쌍방향적이고 쌍무적인 관계로 낳고 길러준 부모의 사랑(慈)을 자녀가 터득하여 효(孝)로써 실천하는 규범이다.

주제어 : 부모-자녀 관계, 가족주의, 효

논문제출일 : 2007. 10. 09.

최종심사일 : 2007. 11. 23.

* 대진대학교 강사

Corresponding Author : Ryu, Jung-Hyun, Dept. of child welfare, DaeJin University, Sundan-dong, Pochun-si, Kyunggi-do, Korea, 487-711. E-mail : zalea@hanmail.net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이 태어나서 최초로 접하게 되는 환경은 가족이며 부모는 최초의 경험대상이 된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속하게 되는 부모와의 관계는 그 안에서 아동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학습하며,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기의 역할을 인식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부모-자녀의 관계맺음의 형식과 과정 그리고 그 내용은 사회적 관계로 확대되며(최상진, 2000), 아동의 성격형성이나 정서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Darling & Steinberg, 1993).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화 시키는 데 바람직한 방식이나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자녀 양육의 목표가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적이라 할지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문화마다 차이가 있고(Chao, 1994; Darling & Steinberg, 1993; Susan, Karen, Cynthia & Paul, 1998), 동일한 양육행동도 어떠한 문화권에 그 개인이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자녀에게 다른 의미로 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Spencer & Dombusch, 1990).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와 서양의 부모-자녀 관계가 이렇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기준을 서양이 아닌 타 문화권의 연구 대상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동일한 현상이 관찰되는지 알아보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어왔다(최수향, 1997). 이러한 현상으로 문화의 특수성이나 고유성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한국인의 부모-자녀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의 고유한 문화 그 자체를 그대로 투명하게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박영신·김의철, 2004). 그러나 최근까지의 부모-자녀 관계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연구들이 서양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부모-자녀 관계 연구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박수영, 2005).

지금까지의 부모-자녀 관계의 연구들은 양육행동, 양육태도, 의사소통 유형, 양육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기여하였으나 서구의 이론이나 모형에 입각하여 수행된 연구들이 많았다(김효은, 2006; 신진호, 2004; 오경자·문수경, 2006; 장진아·신희천, 2006; 정선진, 2005). 이로 인해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규명하지 못하여 한국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을 잘 반영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김재은, 1974; 이원영, 1998; 임정하, 2003; 허묘연, 2000; 정선진, 2005). 최근 국내 연구(박영신·김의철, 2004; 임정하, 2003; 정옥분·김광웅·김동춘·유가효·윤종희·정현희·

최경순·최영희, 1996; 최상진·유가호, 1995)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토착적인 개념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는 시도가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으로 ‘부자자효(父子慈孝)’와 ‘부자유친성정(父子有親性情)’, ‘측은지심(惻隱之心)’에 의한 부모자녀 간의 강한 동일체감 등이 제시되었다. 부모자녀간의 강한 동일체감은 자식이 부모의 고통을,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경험하는 성향이 높고, 나의 잘못된 행동은 나만의 잘못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 혹은 우리 가문에 누를 끼치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현상들은 부모와 자녀가 각각의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전체의 일부분으로 보고 자녀를 부모의 확장으로 생각하는 자녀양육방식에 따른 것으로 한국적인 양육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의 연구들에서 많이 간과 되어온 다른 측면으로는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의 차이 및 상호보완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상이 고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엄부자모(嚴父慈母)이다. 이 격언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지도, 교육, 훈육을 담당하며 어머니는 가족 내에서 정서적인 위안자의 역할을 한다(이양희·류정현, 2003; 정옥분외, 1997).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나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 사회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는 부자(父子)관계, 부녀(父女)관계, 모자(母子)관계, 그리고 모녀(母女)관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자신이 속한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문화권의 특정한 신념이나 통제 규범과 특정 사고방식 같은 정서적 문화(emotional culture)는 그 문화권에 속하는 개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Gordon, 1989). 따라서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가치나 신념들도 그 사회 전반적으로 지배되어 전해 내려온 중요한 가치체계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유교문화이다(유학주임교수실 편저, 2000). 한국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가운데에서도 전근대 사회의 지도 이념이었던 유교적 전통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사회로 인식되고 있다(최영진, 2005). 유교적 전통 가운데 가장 구속력이 강한 것이 가족주의이며(강창동, 1996; 김덕균, 2005; 신수진, 1998; 한경순, 1999), 가족주의가 한 가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로 확산되어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과 한국의 사회구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서선희, 1995; 신수진, 1998; 옥선화, 1989; 최준식, 1997). 이러한 전통적 가족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규모나 형태, 가족 관계 등의 일련의 변

화에도 여전히 가족생활을 규정하는 규범의 뿌리로 여겨지며 지속되고 있다(김덕균, 2005; 서선희, 2003; 이수연, 2000; 이영자, 1999; 최영진, 2005; 최정혜, 1999).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家族主義)는 조선시대 유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널리 보급되어 온 가치이다(서선희, 1995; 신수진, 1998; 최영진, 2005). 따라서 조선시대의 가족주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유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이 효(孝)이다(김문준, 2002; 김병희, 2006; 우준호, 2006; 유석춘·최우영·왕혜숙, 2005; 유한구, 1996; 정옥분 외, 1996; 최경순, 1997). 효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나타나며 그 실천은 살아계신 부모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조상을 향해서도 효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기본 지침이 되어주고 있다.

효경에 의하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감히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감히 남을 업신여기지 못하니, 사랑과 공경을 다해 어버이를 섬기면 덕과 가르침이 모든 백성에게까지 미쳐서 온 천지의 모범이 되니, 이것이 바로 천자(天子)의 효도이다(子曰 愛親者 不敢惡於人 敬親者 不敢慢於人 愛敬盡於事親 而德教加於百姓 刑於四海 蓋天子之孝也, 孝經 2章 天子章)(권영한, 2000)” 즉 효는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시작되며 혈연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까지 확대되는 개념이며 한국문화에서 인간관계의 연구 특히 부모자녀의 관계에서 생략되어서는 안 될 가치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가치체계가 형성되어 감에 따라 우리 고유의 가치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이성용, 2006). 따라서 현재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의 변화는 우리사회가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반적인 가치체계가 전통적인 유형에서 근대적인 유형으로 바뀌는, 즉 동양적인 가치와 서구적인 가치가 동시에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규원, 1995; 한남제, 1994). 따라서 과도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가족주의와 효가 부모-자녀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한 가족의 가족문화는 가족구성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족관계의 중심은 가족을 이루는 핵심으로서의 부모-자녀 관계를 들 수 있고 이 관계는 우리의 전통적 ‘효(孝)’ 사상과 연결된다는 것에 기초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먼저, 한국 사회라는 문화적 맥락 내에서 나타나는 부모-자녀 관계의 특징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적 특성인 가족주의와 효(孝)가 부모-자녀 관계와 어떠한 관계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관해 문헌 고찰을 통해서 밝히고자 한다.

II.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

최근 우리나라에서 양육에 관한 연구(이원영, 1998; 최수향, 1996)는 서구 문헌에 나오는 ‘권위 있는 양육태도’로 서양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간주하는 “개별적(differentiated) 부모-자녀관”에 근거한 개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부모와 자녀가 ‘가족’이라는 전체의 일부분이라고 전제하고 부모와 자식을 심리적으로 독립된 개별적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동양의 부모를 연구하는 데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서양과는 다르게 한국의 가족관계, 특히 부모-자녀 관계는 사회의 일반적 인간관계 윤리와는 다르며, 차별화되는 특수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친밀한 대인관계, 즉 부자, 군신, 부부와 같이 자신과 특별한 연고관계가 있는 사람들 간의 대인관계 윤리는 일반인들과의 대인관계 윤리와 질적으로 다르며(박명석, 1993; 최상진, 2000; 최상진·김혜숙·유승엽, 1994), 한국의 부모나 자녀는 ‘부모-자식을 하나’로 지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자식이 부모의 고통을,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경험하는 성향이 높다. 최상진(1994)은 이러한 상태를 ‘동일체감’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부모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못한다고 하였다(김재은, 1974; 최상진, 1994). 따라서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는 개별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와는 다른 관계주의 문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관계주의 문화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관계이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에는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은 가정에서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어왔다. 계녀서(戒女書)나 사소절(士小節)과 같은 전통서에 따르면 발달 초기의 자녀교육에서 어머니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이르고 있으며 특히 여아의 교육은 어머니에게 그 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모든 사랑 가운데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깊은 것으로 보고 있다(임정하, 2003). 하지만 전통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어머니의 역할만이 강조 되지는 않았으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은 상보적인 관계이다.

전통적인 부모 역할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에 차이를 두고 있는 원리는 ‘엄부자모(嚴父慈母)’라 한다. 또한 전통가정에서는 아버지를 ‘엄친(嚴親)’으로 어머니를 ‘자당(慈堂)’으로 칭하였는데, 아버지를 칭할 때 ‘엄(嚴)’자에 ‘친(親)’자를 덧붙인 것은 ‘온정적인 아버지이면서도 엄한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이계학, 1995).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는 자녀 사랑의 상징적인

존재이지만 나이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존재이자 동시에 두려운 존재이다. 어머니를 통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경험은 관계적 존재인 인간으로 하여금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바탕을 조성해 주기 때문에 모성의 실조는 관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부성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원리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부성의 실조는 인간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하다. 아버지는 상징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로서 자녀의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자녀의 자기통제 발달에 기여한다. 따라서 아버지와 자녀의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서의 역할은 다르며, 사랑과 두려움의 대상이자 권위의 상징인 아버지의 역할과 자애롭고 헌신적인 사랑의 상징인 어머니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박수영, 2005).

III. 가족주의와 부모-자녀 관계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가운데에서도 전근대 사회의 지도 이념이었던 유교적 전통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사회로 인식되고 있다(최영진, 2005). 유교적 전통 가운데 가장 구속력이 강한 것이 가족주의이며, 가족주의가 한 가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로 확산되어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과 한국의 사회 구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서선희, 1995; 신수진, 1998; 옥선화, 1989; 최준식, 1997). 이러한 전통적 가족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규모나 형태, 가족 관계 등의 일련의 변화에도 여전히 가족생활을 규정하는 규범의 뿌리로 여겨지며 지속되고 있다(김덕균, 2005; 서선희, 2003; 이영자, 1999; 최영진, 2005).

가족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먼저 가족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살펴보고 그 정의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족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신수진(1998)은 “가족주의란 일체의 가치가 가족집단의 유지·지속·기능과 관련하여 결정되는, 가족집단의 단결·영속화·공동이익을 추구하려는 가족 구성원의 꾸준한 집단적 노력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서선희(1995)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체계로서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인간관계의 규범으로 가족을 가장 기본적인 사회단위로 보고 가족의 이익에 일차적 관심을 두는 가치지향을 말한다.”

최재석(1976)은 “가족중심주의는 사회의 구성단위는 가족이며, 이 가족은 어떠한 사회 집단보다 중시되며, 한 개인은 이 가족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가족내 인간관계는 상하 서열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인간관계의 원리가 외부 사회에까지 확대되는 조직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옥선화(1989)는 “가족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화, 부모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족 간 등의 4가지 측면에 대하여 영속적 신념을 가진 특정한 행동의식을 말한다.”

위의 가족주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족이며, 가족이 가치를 제일 중요시 생각하며, 그 가족이 지속적으로 단결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주의를 우리나라의 가족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개념으로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는 가족이며, 가족의 가치를 제일 우위에 두고, 그 가족이 지속적으로 단결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가족구성원들의 꾸준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겠다.

한국인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전통적 가족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는 조선시대 성리학이 정착되면서부터 유교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널리 보급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서선희, 1995; 신수진, 1998; 최영진, 2005). 유교의 정신이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다. 신라, 고구려, 조선시대까지 계속되어왔으나 조선왕조가 성리학을 국학으로 삼으면서 모든 생활과 사상도 성리학의 범주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손인수, 1978).

유교는 개인과 가족 내에서의 효의 윤리, 그리고 사회와 국가 속에서의 충의 윤리를 기본으로 한다. 유교의 목표는 본래 ‘修己治人’, 즉 修身·齊家·治國·平天下 에 있다. 곧 자기 자신을 수양하여 사람을 다스리는 도리’, 즉,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족 내에서의 윤리를 기본으로 하여 이웃과 사회,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윤리를 포괄한다(김동춘, 2002; 신수진, 1998). 또한 유교 규범의 원형인 오륜 가운데 제일조가 ‘부자유친(父子有親)’이며 이는 유교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집단인 ‘가족’을 근간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유교의 가족윤리는 개인보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우위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가족주의의 가치의 최종이 가문의 발전과 계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이광규, 1990). 이것은 효경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식의 도리는 천성이며, 부모가 나를 낳으시니 대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父子之道 天性也, 父母生之 績莫大焉, 孝經, 11章 父母生績章)(권영한, 2000)”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다.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의 특징은 앞서서도 이야기 했듯이 ‘부모-자식을 하나’로 지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로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나의 잘못된 행동은 나만의 잘못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 혹은 우리 가문에 누를 끼치는 것이라 여겨지고, 또한 개인의 성취는 곧 가문의 성취로 간주된다. 이것은 한국인 부모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김재은, 1974; 최상진, 1994) 자신의 성취를 가문의 영광으로 보는 이유 또한 유교의 가족주의에서 우리나라 부모-자녀간의 특징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IV. 효(孝)와 부모-자녀 관계

효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중요한 덕목이다. 일반적으로 효(孝)란 한자는 자(子) 위에 노(老)의 윗부분 글자가 놓여 형성되어 있는 글자로, 그 형태에서 보듯이 효는 노부모와 자녀를 나타내며 그 관계는 부모에 대한 아들의 존경심과 부양을 내포한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였으므로, 자녀는 늙으신 부모를 존경하고 봉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통방식의 효는 자녀가 부모에게 바쳐야 하는 책무와 존경심을 강조하여 왔다(이성용, 2006). 또한 우준호(2006)는 효의 어원을 詩經에서 사용된 孝자와 子의 어원을 살펴봄으로써 ‘尸童을 모시고 지내는 제사에서 음식을 올리다’라고 해석을 했다. 논어에 의하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예로써 하고 돌아가시면 장례를 예로써 하며 제사지내기를 예로써 하는 것(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 論語, 2章 爲政)’이라 하였다. 따라서 효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존경하고 봉양하며, 그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예를 다해 제사를 지내어 조상의 형상을 받드는 것이라 하겠다.

위의 효자에 관한 두 가지의 해석은 효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효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발생하며 살아계신 부모님을 존경하고 봉양하며, 또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제사지내기를 예로써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유교문화이다. 따라서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효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봄으로 조금 더 정확한 효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공자의 사상은 한마디로 인(仁)이라 할 수 있다. 인이라는 글자는 사람(人)과 둘(二)이라는 글자를 합하여 놓은 것으로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낸다(유학주임교수실 편저, 2000). 공자는 논어에서 인(仁)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樊遲問仁 子曰愛, 論語, 12章 顏淵)’이라고 말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관계 맺는 것이 무엇인가? 즉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다. 오륜(五倫)의 제일 덕목인 부자유친(父子有親)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서, ‘친(親)’자의 ‘가깝다’는 것은 사랑의 원리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 말은 ‘친(親)’이라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규범에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는 ‘사랑’이라는 하위규범을 지켜야 하고, 자식은 ‘효’라는 하위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인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인을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며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를 하나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이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다.

효를 말하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부자자효(父子慈孝)’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에 쌍방향적이고 쌍무적인 윤리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석·김익기, 2000; 이성용, 2006). 즉, 효란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죽을 때까지 내내 자녀에게 쏟는 부모의 정성과 사랑(慈)을 자녀가 부모의 그 마음을 올바로 터득하여 효(孝)로서 실천하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겠다.

V.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모-자녀 관계와 유교의 바탕을 둔 한국적 가족주의와 효가 어떻게 관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부모-자녀 관계는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특수성은 부모와 자녀가 각각의 인물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하나로

지각하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이며 아버지와 자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다르다. 한국적 가족주의는 유교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 정의는 사회의 기본적 단위는 가족이며, 가족의 가치를 제일 우위에 두고, 그 가족이 지속적으로 단결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가족구성원들의 꾸준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가족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조선시대 성리학이 정착되면서 보급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족주의는 가문의 발전과 계승으로 이어져 나가게 하는 역할이다. 효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발생하며 살아계신 부모님을 존경하고 봉양하며 또한 그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제사지내기를 예로써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적 효는 유교에서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유교의 핵심사상인 인(仁)사상 역시 그 시작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쌍방향적 쌍무적인 부자자효(父子慈孝)로 나를 태어나게 해주고 길러준 부모의 사랑(慈)을 자녀가 터득하여 효(孝)로써 실천하는 규범 윤리라고 하겠다.

최근 우리나라는 서구문화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가치체계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가족이 변하고 사회가 변해도 우리나라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이다. 따라서 사회의 이러한 과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부모-자녀 관계를 재정립하고 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지금까지 유지시켜온 유교의 가족주의와 효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창동(1996). 한국 가족주의의 교육문화적 성격. 교육사회학연구, 6(1), 1-16.
- 권영한 역(2000). 孝經. 서울: 전원문화사.
- 김규원(1995).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가족학논집, 7, 213-255.
- 김덕균(2005). 유교적 가족주의, 해체인가 복원인가-새로운 가족윤리를 모색하며. 유교사상연구, 109-134.
- 김동춘(2002). 유교와 한국의 가족주의-가족주의는 유교적 가치의 산물인가. 경제와 사회, 55, 93-118.
- 김문준(2002). 효정신의 현대화와 실천방안. 한국의 청소년 문화, 3, 201-218.
- 김병희(2006). 현대사회에서 효의 의미와 효 교육의 원리. 중등교육연구, 54(2), 165-185.
- 김정석·김익기(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155-168.
- 김재은(1974). 한국가족의 집단성격과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효은(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간의 갈등과 부모자녀관계 및 친구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석(1993). 동과 서: 그 의식구조의 차이. 서울: 탐구당.
- 박수영(2005). 아동의 부자유친성정과 자아분화 및 대인관계 성향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신·김의철(2004). 한국인의 부모자녀 관계. 서울: 교육과학사.
- 서선희(1995). 가족중심주의에 대한 유교적 해석. 가족학논집, 7, 21-44.
- 서선희(2003). 한국 사회에서 가족중심주의의 의미와 그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4), 93-101.
- 신건호(2004). 부모자녀관계 유형이 자녀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8(4), 97-113.
- 신수진(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127-152.
- 손인숙(1978). 한국유교의 교육철학-몇 가지의 방향을 중심으로. 일지사(한국학보), 72-94.
- 오경자·문경주(2006).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가족위험요인과 부모자녀관계의 매개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59-76.
-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준호(2006). 시경의 효자 의미 연구.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3(3), 155-172.
- 유교문화연구소 옮김(2005). 論語.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유석춘·최우영·왕혜숙(2005). 유교윤리와 한국 자본주의 정신: 효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6), 52-86.
- 유한구(1996). 효의 의미: 한 교육학적 해석. 한국도덕교육연구, 8, 23-42.
- 유학주임교수실 편저(2000). 유교 인간학.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계학(1995). 세계화를 위한 “효”가치관 정립과 자녀양육방향 모색: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의 현재적 조명-효와 엄부자모를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1-44.

- 이성용(2006). 가족주의와 효. *한국인구학*, 29(2), 215-240.
- 이수연(2000). 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 및 가족관계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양희 · 류정현(2003). 어머니의 정, 양육행동, 아동의 기질과의 관계. *아동권리학회*, 7(1), 201-217.
- 이영자(1999).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와 페미니즘. 현상과 인식, 107-122.
- 이원영(1998). 한국인의 심리에 비추어 본 양육태도. *한국교육문제연구소*, 13, 1-18.
- 임정하(2003).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진아 · 신희천(2006).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569-592.
- 정선진(2005). 또래 괴롭힘에 관련된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 부모-자녀관계 및 친구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옥분 · 김광웅 · 김동춘 · 유가호 · 윤종희 · 정현희 · 최경순 · 최영희(1996). 한국인의 효 인식 및 실천 정도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6), 387-403.
- 최상진(1994). 한국인의 심정심리학. *사회과학연구*, 7, 213-237.
- 최상진(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이진문화사.
- 최상진, 김혜숙, 유승엽(1994). 부자유친성정과 자녀에 대한 영향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65-82.
- 최수향(1997).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 연구: 비교문화 발달심리학을 위한 방법론적 고찰. *한국심리학회 동계세미나*, 59-78.
- 최영진(2005). 한국사회의 유교적 전통과 가족주의. *한국철학학회 춘계학술대회*, 197-213.
- 최재석(1976).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 최정혜(1999).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식의 세대별 비교연구-노년, 중년,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9), 85-101.
- 최준식(1997).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서울: 사계절.
- 한경순(1999). 남녀대학생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부모부양의식. *대한가정학회지*, 37(9), 15-24.
- 한남제(1994). *한국 가족관계의 문제*. 서울: 다산출판사.
- 한영진(2004). 부자자호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요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Chao, R. K. (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 1111-1119.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 151-162.
- Susan, H. L., Karen, E. S., Cynthia, L. Miler-Loncar & Paul, R. S. (1998). The Relation of Change in maternal interactive styles to the developing social competence of full-term and preterm children. *Child Development*, 69, 105-123.

- Petersen, J. T.(1993). Generalized extended family exchange: a case from philippin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441-451.
- Spencer, M. B., & Dornbusch, S. M. (1990). Challenges in studying minority children. In S. S. Feldman & G. L. Elliott(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123-14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Parent-Child Relation, Familism, and Hyo

Ryu, Jung-Hyun *

This stud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an the concepts of parents and children relationship, Familism and Hyo(孝) in Korean society. As a result from the study, we found some unique Korean cultural features in parents-children relationship.

First, Koreans have 'blood solidarity' concept between family members. Parents think their children as some kind of their clone(alter ego), not just as independent existence.

Second, traditional Hyo can exist with relation to parents' labour for nurturing, it is on-sided relationship emphasizing children's responsibility; the Hyo should be practiced after parents die as well as while parents live.

Finally, traditional Familism based on the confucianism value of "ka(家; meaning of family)" and has placed and emphasis on parents and children. "Familism" which is the central governing principle in Korean families has been related to the individual, the family and the society.

Key words : parents-children relationship, Familism, Hyo(孝)

* Daejin University Lecturer